

전남크리에이티브워크전, 청암대 전국고교 웹툰공모 입상작 전시

전남콘텐츠코리아랩에서 최근 진행하는 웹툰크리에이티브워크전에 청암대학교 웹툰콘텐츠과에서 주관한 제1회 전국고교웹툰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했다.

청암대학교(총장 서형원)는 이번엔 전시되는 웹툰작품들은 웹툰콘텐츠과 신설에 즈음하여 학과 홍보 및 웹툰 저변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제1회 청암대학교 전국고교 웹툰공모전을 개최하여 입상한 우수한 작품들을 전남콘텐츠코리아랩에서 주관하는 웹툰크리에이티브워크전에 청암대학교

웹툰콘텐츠과 홍보 및 웹툰 저변 확대 위한 방안 시상식없이 상장·상품 개별전달 및 우편발송 예정

부스를 마련하고 전시한다는 것. '더불어챌린지'를 주제로 개최한 공모전은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카툰, 스토리만화, 캐릭터디자인 부문으로 모집하여 총 100여명이 응모하였다. 그 결과 최종 12점의 작품을 선정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발표

하였으며, 대상에는 순천여자고등학교 3학년 조은지 학생이 차지하였다. 심사는 웹툰콘텐츠과 장웅 교수 외 현업 웹툰작가 3명이 참여하였고, 접수된 작품은 노력, 발전가능성, 재능 등을 심사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장웅 웹툰콘텐츠과 교수는 "청암대학교 웹툰콘텐츠과는 국내 웹툰작가

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웹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별도의 시상식 없이 상장과 상품을 개별 전달 및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입상작품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전남콘텐츠코리아랩 1층에서 진행되며, 입상자에게는 청암대학교 웹툰콘텐츠과 입학 시 총장 특별장학금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극락초, '6학년 자전거 추억여행' 실시

학급별 학교 근처 승촌보까지(32km) 영산강 자전거길 이용

광주극락초 6학년 학생들(38명)이 지난 21~22일 이틀에 걸쳐 학급별로 학교 근처 승촌보까지(32km) 영산강 자전거길을 이용해 '6학년 자전거 추억여행'을 다녀왔다.

23일 광주극락초에 따르면 6학년 교육과정 '나와 우리' 프로젝트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자전거 추억여행'은 수학여행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활동이다.

6학년 담임교사들은 학생들이 가장 기대했던 수학여행의 취소로 이번 '자전거 추억여행'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교사·학부모·학생·지역인사들이 함께 계획하고 진행했다.

광주극락초는 이번 자전거 추억여행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해 계획부터 많은 준비를 했다. 김형수 교감을 비롯한 교사들은 교

내에서 일주일 동안 자전거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학교로 무사히 돌아오기까지 많은 부분을 지원했다.

광주극락초 한 학생은 "온라인 수업기간 동안 모니터 앞에만 앉아있어 힘들었는데 초등학교 졸업 전에 이런 추억을 만들 수 있어 행복했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격려하며 완주해 성취감과 희열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자전거 추억여행'을 통해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학생은 "집에서 게임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자연의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 여행이 훨씬 재밌었다"며 "다음 목표는 아빠와 함께 자전거로 목포까지 완주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순천대 박물관 '박종철 교수 기록물로 보는 30년' 전시회 열어

내달 20일까지 순천대 박물관 1층 전시실서 개최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가 교수 개인이 30년간 모은 대학의 기록물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순천대 박물관은 '박종철 교수가 모은 순천대 30년의 기록' 전시회를 이달 20일부터 한 달간 순천대 박물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는 것.

전시회에서는 박종철 순천대 한약자원개발학과 명예교수가 198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32년 6개월간 수집·보관해온 교직원수첩, 대학 공문서와 간행물, 학생회 자료와 동아리 홍보물 등 대학의 30여 년 역사가 담긴 기록물 400여 종을 선보인다.

박 교수가 순천대에 임용된 첫 해인 1988년 학생들의 이름을 익히기 위해 강의실에서 촬영한 학생들의 사진을 비롯하여 학과 시간표, 시험지와 실험보고서, 학생들의 편지, 강의노트와 월급명세

서 등 당시 학과와 학생, 교원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박 교수가 오랫동안 소장직을 맡았던 순천대의 유용천연자원연구소, 한의약 연구소와 김치연구소의 다양한 역사자료도 함께 전시한다.

특별코너에는 기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박 교수의 고교·대학 시절의 노트, 참고서, 편지는 물론 군복무 시절의 월급명세서까지 7~80년대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흥미로운 개인 소장품들도 마련되어 있다.

평소 꾸준히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왔다는 박 교수는 "1998년부터 써온 개인수첩 60여 권도 시간이 지나니 역사 기록물이 되었다"며 "이번 기회에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별전을 준비한 이육 순천대박물관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 대학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순천대 30여 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년 8월에 순천대를 정년퇴임한 박종철 교수는 현재 세계약초연구원을 설립하여 원장을 맡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화순교육지원청 '웃음꽃! 프로젝트' 운영

관내 유·초·중 75학급 총 1386명 참여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식)은 10월 23일부터 코로나19로 장기화에 따른 심리적 면역력이 떨어져 분노, 불안, 우울감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웃음꽃! 프로젝트'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웃음꽃! 프로젝트'는 비대면 수업, 위축된 신체활동, 친구와의 관계맺기 부족 등으로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이며 화순관내 유·초·중학교 75학급 총 1,386명이 참여하게 된다.

운영 내용은 학급별로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놀이활동, 관계향상을 위한 미술활동, 자존감 향상을 위한 미술활동, 긍정적 자기 표현 강화를 위한 푸드아트 등 1시간씩 특별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푸드아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평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 "샌드위치는 그냥 음식이었는데 오늘 개구리로 변신을 했어요! 눈도 만들고 입도 만드니 진짜 개구리 같아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자랑할래요!"라며 미소를 지었다.

한편 한 담임 교사는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놀이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보면서 "그동안 비대면 수업으로 지친 아이들에게 신체를 움직이며 하는 놀이활동이 학교생활을 즐겁게 한다"며 프로그램 진



행에 만족감을 표현했다. 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최원식)은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달라지는 교육환경에 대비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유쾌하고 행복한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과 맞춤형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